

海外情報

◦ 인도, 고정가격제의 추가 수정 촉구

힘겨운 비료산업 장려정책을 계속 시도해 온 가운데, 마침내 여러 장관들이 내각의 경제위원회에 현행 고정가격제(RPS)에 대한 수정을 촉구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재 비료회사들은 정부로부터 비료생산에 대한 고정 가격을 개별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 가격은 생산비용에 12% 이윤 마진을 더한 비용에 따른 것이다. 이 수정안에서는 비료회사를 공급 원료에 따라 1992 이전 가솔린, 1992 이후 가솔린, 1992 이전 나프타, 1992 이전 나프타, 중유, 혼합 에너지 등 6개 그룹으로 먼저 나누어 고정 가격을 계산하게 되어있다. 평균 가격을 밀도는 회사부터 최고 20%까지 웃도는 회사까지는 평균 가격을 그대로 책정하고, 평균 가격을 20% 이상 초과하는 회사는 비료사업 년도로 2003-4년 동안만 평균 가격에다 현 가격과의 차이분 50%를 더한 가격을 받는다.

이러한 수정안은 공급 원료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평균 가격을 계산하던 기존 정책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지만, 고비용 회사들의 부담은 여전하다. 또한 장관들은 2004년까지 비료 수송 보조금의 단계적인 삭감과 함께 비료 회사들이 생산량의 50% 범위 내에서 판매 지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 Nitrogen & Methanol No. 260, November-December 2002 >

◦ EU, UAN에 대한 반덤핑 관세 철회

유럽 위원회는 폴란드의 ZAP(Zakiady Azotowe Pulawy)사에 대한 조사 결과 ZAP사의 EU내 덤프링 관행이 사라졌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ZAP사는 수입에 대하여 19/t의 현 반덤핑 관세를 면하게 되었으나, 다른 폴란드 수출업체는 22/t의 관세를 종전대로 부담해야 한다.

유럽 위원회에 의하면 이번 조치가 가능했던 것은 폴란드 내수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흑자 내수판매를 덤픽 마진 계산에 넣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ZAP사가 다른 분야의 내수 판매에서는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흑자 내수 시장과 EU외 지역에 대한 수출이 확대될 것이며, 점차 유해한 EU 내 덤핑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유럽비료제조업체연합회(EFMA) 회장인 헬무트 알딩거는 “EFMA는 UAN 솔루션의 폴란드 시장 확대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 추세로 볼 때 단기간에 100만톤이나 되는 UAN 혼지 용량을 흡수할 수 있는 시장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언급했다.

어쨌든 EU 당국이나 EFMA는 폴란드가 본격적으로 EU에 진출함으로써 우선은 덤핑 관행이 사라져서 진정한 시장 경제 원리에 따른 교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FMA는 가입국 업체들이 EFMA와 EU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미 협상을 진행 중이다.

< Nitrogen & Methanol No. 260, November-December 2002 >

- 독일의 DSM사, 중국에 합작 투자 참여

독일의 DSM사는 중국 Sinopec사의 자회사인 SNCIC(Sinpoec Nanjing Chemical Industries Company)와 합작으로 카프로락탐 및 황산암모늄 공장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이 DSM Nanjing 화학비료 회사의 지분은 DSM과 SNCIC가 60% 대 40%로 소유한다.

이제 DSM사의 HPO+ 기술이 도입되면 SNCIC의 현재 카프로락탐 생산량은 60,000t/a에서 140,000t/a로, 황산암모늄 생산량은 110,000t/a에서 250,000t/a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Sinopec사가 공급하고 있는 공업용 암모니아도 외부에서 들여오게 되며, 생산된 황산암모늄은 내수 판매 될 것이다.

< Nitrogen & Methanol No. 260, November-December 2002 >

◦ 이란의 NPC, 암모니아/요소 프로젝트 계약 체결

이란의 NPC(the National Petrochemical Company)는 Kermanshah 암모니아/요소 프로젝트를 Kawasaki중공업/Tomen/Namvaran 컨소시엄에 맡기기로 결정하고 2억6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특허권과 제반 기술 및 장비 지원에 대한 조항이 있으며, 설비는 서부 이란의 Kermanshah에 건설될 예정이다.

이 단지에서는 천연 가스 65000Nm³/h 공정을 통해 400,000t/a의 암모니아와 660,000t/a의 그레뉼 요소가 생산된다. 특히 요소는 내수 시장에 공급하고 남은 양만 수출된다.

이 컨소시엄은 암모니아 공장에는 KBR사의 저에너지 암모니아 공정과 BASF사의 AMDEA 이산화탄소 제거 시스템을 도입하고, 요소 공장에는 Stamicarbon사의 풀 컨센서와 HFT사의 그레뉼 공정을 도입하게 된다.

이 단지에는 필요한 설비 및 부지 밖 설비까지도 함께 들어서며 앞으로 확장에 대비하여 20%의 여유 공간도 있다.

Namvaran은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이란 회사로서 세부 기술과 현지에서 만든 설비를 공급할 것이며, 단지는 2005년쯤 완공될 예정이다.

< Nitrogen & Methanol No. 260, November-December 2002 >

◦ 호주, 난관에 부딪힌 세계 최대 비료단지 건설

호주 버럽반도에 세계 최대 암모니아/요소 프로젝트인 DAMPER NITROGEN을 건설하는 사안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PRCL사의 회장 리처드 M 모건이 주주총회에서 지난 주 밝혔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문제들은 프로젝트의 추가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파산 가능성 조사도 연기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Agrium사에 이어 자산 규모로는 두 번째가 되는 PRCL도 현재의 참여 수준을 유지하려면 곧 많은 자금을 추가로 동원해야 할 것이다.

\$

이 프로젝트는 Agrium, PRCL, Thiess, Ulidie사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하며, 2300t/d의 암모니아 생산 설비와 3500t/d의 요소 생산 설비가 세워질 계획이다.

모건 회장에 따르면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주 정부는 프로젝트가 관련 법안에 부합되려면 고임금과 비싼 사용자 수익금이라는 문제에 부딪힐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Dampier Nitrogen에 어떤 요소 그래뉼 기술이 도입될지 아직도 미정이다.

Hydro사는 올해 들어 요소 그래뉼 기술을 기존 생산 라인과 고객에게만 국한시켰는데, 이 때문에 Hydro사 자신이 결국 Stamicarbon, Tokyo, Kaltenbach Thuring사의 기술에만 매이게 되었다.

이 밖에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녹색당을 비롯하여 환경 단체들이 베럽반도의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호주 사람들과 부지를 놓고 마지막으로 세번째 협상을 해야한다. 그러나 프로젝트에 대한 파산 가능성 조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비용은 A\$10,000,000(\$5.6m) 이상이 될 것이다.

이 조사는 2003년 6월 30일이 마감이며, 공사 착공은 2003년 하반기부터, 공장 가동은 2005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PRCL에 따르면 영국의 BSC(British Sulphur Consultants)사는 암모니아/요소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이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시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다른 언급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악재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호재로서는 들 수 있는 것은 노스웨스트 지역의 합자 참여 회사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천연 가스를 공급하는 점, Ulidie사의 암모니아/요소 생산 기술, 호주 기술 및 건설 업계에서 대기업에 속하는 Thiess사의 참여 등이다. 그 밖에도 확대되고 있는 내수 시장(1.4m t/y), 수요 증가를 보이는 해외 시장(100m t/y)이 지리적으로 빨리 연결되고, 캐나다 Agrium사가 프로젝트에서 가장 비중 있는 역할을 맡게 된 것도 역시 호재로 작용한다.

한편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환경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의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승인이 임박한 가운데, 해수 냉각 시설 마련, 부두 시설 사용, 그 밖에 간접자본 이용 등에 대한 협상도 많이 진전되었다고 모건은 전한다.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study, please contact Dr. Michael J. Hwang at (310) 206-6500 or via email at mhwang@ucla.edu.

그리고 일괄적인 텐키방식의 계약 및 운영과 유지 보수에 관한 조항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 Fertilizer Week 6, December 2002 >

- Hydro, 배트남에 복합비료공장 가동 예정

지난 11월 16일, Norsk Hydro사는 베트남 Ba Ria Vung 지역에 있는 Phu My 공업지구 내에 연간 생산량 200,000톤의 비료 공장을 열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될 NPK 비료는 주로 메콩강 삼각주 지역에 공급될 것이나, Hydro사는
캄보디아와 같은 인근 국가에도 생산량의 일부를 팔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Norsk Hydro사가 베트남에서 세운 합자 회사는 Hydro Agri Vietnam이다.

이 공장은 건설 비용이 약 650만 달러 정도로서 Baria Serece의 원양 항구에 접한 5헥타 부지에 건설되며, 10,000m³의 창고 시설도 포함된다. Hydro사는 Baria Serece에 2개의 보세 구역 창고 시설을 포함하여 거의 100,000톤의 저장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공장은 Hydro사가 베트남에 비료 공급을 시작한 지 10년째 되는 날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Hydro사는 1992년부터 베트남에 1kg들이 CAN 제품, 요소, DAP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을 시장에 선보여 왔고, 베트남 비료수입의 16%에 해당하는 500,000톤을 수입해 왔다. 그러나, 공장으로 인해 생산량이 증가해도 수입물량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맞춤식 NPK 제품을 베트남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 합자회사의 지분은 Norsk Hydro사가 67%, 베트남의 Vict Ha사가 28%, 베트남의 Thasimex사가 5%를 각각 소유하게 된다.

본격적인 생산은 1999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건설은 Hydro사의 내부적인 구조 조정 프로그램으로 인해 다소 지연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경제 위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사업 전략을 펼쳐야 했다.

< Fertilizer Week 22, November 2002 >

//

◦ 호주 Incitec, Pivot와 합병

호주의 비료 생산업체인 Incitec사와 Pivot사가 합병하여 Incitec Pivot라는 새 이름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새 회사의 주식자본은 현 Incitec주주가 70%, Pivot 주주가 30%를 소유하게 된다. 따라서 호주 폭약회사이며 현재 Incitec 주식의 76.55%를 차지하는 Orica사는 새로 태어날 회사에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재료 흐름 관리와 같은 분야에서 중복 현상이 불가피하다. 합병 후 연간 생산량은 약 A\$ 1bn(US\$ 550m)에 이르며, 호주 내 총 비료 생산의 50%를 차지하게 된다. 현재 주주들의 승인과 절차상의 문제들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합병을 하면 Incitec사에서 폭약 생산을 주로 관리하던 공업화학 부서(Industrial Chemicals Division)는 Orica사가 A\$315m(US\$ 175m)에 인수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Orica사는 Incitec에서 폭약 생산의 60% 이상을 구입해 왔으며, 정부는 합병이 타결되기 전에 이 부서의 정리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마음속으로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자신의 인내력을 시험해보자. 처음에는 5분 정도에서 시작해서 차츰 인내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좋다. 자신에게 “좋아, 5분 동안 그 어떤 것에도 짜증 내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참아내겠어”하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해보라. 머지않아 당신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리처드 칼슨의 우리는 사소한 것에 복雠을 겪는 중에>